

소외와 회복의 시학

-김현승 시 연구-

이영섭
(경원대학교)

1. 언어의 두 국면과 치료의 기능

하이데거는 존재망각의 이 시대를 사라져 버린 신들과 도래하는 신 사이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존재했던 신은 이미 사라지고 아직 신은 도래하지 않은 ‘이중의 무’ 속에서 현대는 밤의 시대고 가난한 시대라고 했다. 확실히 현대는 시적 이상인 신성한 존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킨 소외의 시대이다. 그래서 현대는 신과 신성한 것들의 결핍과 부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질병은 이런 영적 결핍과 부재의 소외로 인한 내면적 상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존재가 거주하고 있는 본질적 언어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의식(존재)의 그림자와 자기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병리적 상태로 보는 게슈탈트 심리치료학에서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부조화에서 비롯된 내면이 그림자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치료라고 명명한다.¹⁾ 어쨌든 근원적 존재와의 의사소통은 순수한 영적 동일시를 통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불완전한 언어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만들어 낸 가상을 쓰고 구조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존재는 ‘숨겨져’ 있는

1)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전체적이고 유기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인 심리의 통적 평형상태를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는다. 이는 감성의 카타르시스와 인지적 통찰을 통한 전통적인 심리치료와 더불어 중요한 치료 개념이기도 하다.

은폐성과 동시에 ‘변장(비유를 통한 암시로써)’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성을 갖는다. 의식에 의해 감시를 받는 무의식처럼 직접 말하지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존재의 무의식 세계는 논리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비유로 환기함으로써 ‘각성’할 뿐이다.

한편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되어 있다>는 구조주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치 현상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야콥슨이 언급한 언어의 두 축인 은유, 환유와 동일시함으로써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시적 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²⁾

정신 현상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러한 통찰은 문학 치료의 관점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야콥슨은 「언어의 두 국면과 실어증의 두 유형」이라는 논문에서 실어증을 갖고 있는 내담자로부터 은유나 환유, 즉 선택이나 결합 가운데서 어느 한 능력이 부족함을 알아냈다. 즉, 어떤 아이는 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다른 아이는 말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결합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야콥슨은 앞의 경우를 유사성의 장애, 뒤의 경우를 인접성의 장애라 불렀다. 전자의 경우는 통사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메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후자의 경우는 문맥은 붕괴되어 있지만 어떤 사물끼리 유사한가 하는 상투적 문구를 말하는 발화는 가능했다.³⁾ 이와 같은 정신 병리에 대한 분석은 은유와 환유라는 용어가 수사학적인 용법의 범주를 넘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언어구조의 두 축, 선택축(은유적인 축)과 결합축(환유적인 축)은, 위에서처럼 실어증의 두 유형을 유사성 장애와 인접성 장애의 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심리현상과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된다.

특히 요즘 들어서 야콥슨이 산문의 원리로 얘기한 바 있는 환유가 우리 시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현상의 밑바탕에는 이질적인 것들로부터 유사성을 유추해 내는 ‘은유적 사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깔려

2) 박찬부, 「정신분석과 텍스트의 문제」,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168-169쪽 참조

3) 변학수, 「문학의 공시적 구조」, 『문학치료』, 학지사, 2005, 349쪽.

있다. 은유적 사고는 낯선 사물들을 친숙한 관계로 유추해 내는 천재성과 성숙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그것이 맹목적으로 동일성을 향해 작용할 경우, 이질적 타자들을 강제로 같은 이름으로 묶어 호명하는 폭력을 자행하게 된다. 이처럼 수직적 사고의 유추작용이 별이는 사물의 계열화 이면에는 푸코가 지적한 계보화로 인해 인위적으로 타자를 소외시키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일례로, 중세 시대의 경우 나병(癩病)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관련된 은유로 둘러싸여 있었다. 환자들은 이런 질병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신체적인 고통 외에 도덕적인 고통까지 겪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유 없이 사고할 수 없다. 근원적 사고인 은유적 사고는 환유의 기호로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존재를 상징적 언어로 번역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통로이기도 하다. 이질성을 띤 현상적 타자를 인위적인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은유의 내밀한 수직적 사고는 니체가 비웃었던 것과 같은 결코 남아빠진 환상에게 진리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물질이 현란하게 춤추는 타락한 시대일수록 스스로 내면을 진단하고 성찰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고가 역설적으로 더욱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은유적인 사유(수직적 사고)를 동일성에의 의지에 연결시킨다면, 환유적인 사유(수평적 사고)는 그 반대편의 에너지인 차이성에 연결되어진다. 환유는 연상을 통해 인접한 것들을 연결시킨다. 은유에선 보편성이 중시되는 데 비해 환유에서는 개별성이 강조된다. 은유는 본질과 필연성을 지향하지만 환유는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환유에는 발견의 힘이나 통일성을 부여하는 구심력이 별로 없다. 은유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환유적 기호는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며 뺏어나가는 덩굴의 차연적 속성을 지닌다. 환유적 연결에는 이미 인접성과 관련성이 관습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연결 자체가 은유처럼 인식론적 충격과 전율을 주지 않으며, 인식론적 발견과 합일을 목표로 삼는 사고는 아니다.⁴⁾ 환유적인 기호

4) 박진, 김행숙 지음, 『은유와 환유-수사학인가 세계관인가』, 『문학의 새로운 이해』,

의 고리들은 의미를 모으지 않고 오히려 미끄러지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 하나하나의 고리들은 인접해 있지만, 그 연결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에 기대어 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며, 그 끝도 알 수 없고, 끝이란 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해체된다. 따라서 환유적인 시들은 우연과 불확정성(발산, 흩어짐, 이탈, 미완성, 미숙함)에서 미학적 에너지를 얻는다. 환유적 사고 방법은 현실의 과편성과 부조리성을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은유적으로 봉합된(통합된) 세계란 허상일 뿐이라고 폭로한다. 환유의 이런 특징 때문에 아콕스는 환유를 리얼리즘과 연결시키고, 은유를 낭만주의 이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현대인은 풍속과 윤리의 변화가 질주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기조차 어렵다. 그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몸’으로 재구성되고 재확인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되었다. 자기 정체성은 일시적으로 펼쳐져 가는 상황 속에 늘 새롭게 해석되기를 강요받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인의 빠르고 바쁜 삶은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접한다 해도 진지하게 앉아 그를 대면하지 못하게 한다. 환유는 그 문화 외형이 현란한 카니발로 점철되는 상황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자기의 몸과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⁵⁾

환유적 사고는 문화산업에 의해 은폐된 부정과 부조리를 건조하고, 냉소적이며, 그로테스크하게 기록해냄으로써 스스로의 소외를 통찰해내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환유적 사고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칭하지 못하고 단지 기호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의해 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차가운 물질성 속에서 기호내적인 존재로만 한정된다. 인접된 사물의 상호 관련성에 의해 기호 내에서만 움직이는 환유적 방법은, 기호 너머의 관념이나 사상, 혹은 신과 같은 존재의 근원을 표현하는 데는 부적절하며, 다만 기표의 놀이로서의 언어 유희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시

2004, 241-263쪽 참조

5) 박승숙, 「치유환경으로서의 인간관계」, 『영화로 배우는 미술치료 이야기』, 들녘, 2000, 17-20쪽 참조

적 주체는 관찰하는 인접 대상으로부터 역전이 되어 형이상학적 자기 탐구에 의 도정을 잃고, 요설과 금지된 놀이가 횡행하는 카니발적 난장판에서 떠돌아 다니는 미아가 될 위험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윤리적 실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뀌는 현실에서 내면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한 자기희생의 고통과 고행의 대가를 요구한다. 이럴 때 근대적 자아(ego)는 삶의 수레바퀴를 늦추면서 광포한 소유의 욕망을 비우고, 근원적 내면과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회감(回感)을 위해 서정시의 본질인 은유적 사고를 매개로 진정한 자기(self)를 찾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는 은유나 환유의 불완전한 <이야기 말하기> 능력, 환자들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논리적 공백, 틈새, 불확실성, 불일치성, 한마디로 말해서 탈문자 현상 전반을 억압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치료는 억압된 내용을 들추어내어 논리적 공백을 메우고 탈문자 현상에 문지를 공급하는 일, 다시 말해서 환자의 불완전한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야기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언어 치료의 가능성이 열려 지게 된다.⁶⁾

이처럼 언어의 두 축인 은유와 환유의 구조화는 수사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시인의 상상력이 구성되는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인의 시의식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김현승은 그가 믿고 있었던 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백과 틈새를 발견하고 그러한 신에게서 벗어나 ‘단독자’로 서고자 했던 시의식의 변화과정을 거쳐, 다시 새롭게 신에게 귀의하는, 바른 신앙을 모색하는 도정을 보여준다. 상상계와 상징계를 진동하면서 실재계를 지향하는 라캉의 분석 모델은 김현승의 시의식 세계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는 데 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은유의 수직적 사유로서 영성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제점을 치유해 나아간 시인의 도정은 그의 내면탐구의 미적 구조 속에 아로새겨 있다. 이러한 영성 탐구의 흔적은 시치료가 심리치료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근원적으로 깊은 영적 차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6) 박찬부, 위의 책, 200-201쪽 참조

시치료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형이상학적인 존재 탐구의 측면이 강한 김현승의 시는 그의 내면에 있는 관념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수평적(환유적)사고보다는 서정시의 본질인 수직적(은유적)사고에 기울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가 수직적 사유에 경도된 배경과 그의 독자적인 시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의 내면 탐구 의식을 좀 더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 영적 탐구란 용어를 빌어서 썼는데, 이 용어는 문학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얻은 개념이다.⁷⁾ 존재를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는 서정시의 본질상, 내면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인의 주된 상상력은 시의 심리가 일반적인 정신현상에만 머물지 않으며 보다 근원적 정신현상인 영성에 도달하게 된다.

2. 영적 탐구와 시의식의 변화

김현승은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 아래 기독교 개신교 목사 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청교도적 양심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미덕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시인이다. 그는 영화 중에서 서부극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모략과 오해와 압력과 고립 가운데서도 양심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주인공의 깨끗하고 깨끗한 행동과 주인공이 애정의 해피엔드(카타르시스)없이 최후의 승리를 남겨둔 채馬上에 올라 어디론가 孤高하게 떠나 버리는 라스트 신을 보게 되면 그 인상이 더욱 짙게 남기 때문이었다.⁸⁾

7) 영성이란 자기초월과 자기포기를 위한 심오하고도 신비스러운 인간적인 열망에 대한 반응이다. 인간 내면에 있는 영성은 타자를 돌보아 치유할 뿐 아니라, 인간을 더 존귀한 존재를 향해 열망하게 만든다. 자기 초월적인 포기(self-transcendent surrender)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음을 깨닫게 된다. David G. Benner, 이만홍·강현숙 옮김, 『청교도 영성』,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 하나의학사, 2000, 155쪽.

8) 김현승, 『文學白晝』, 이운룡 편, 『김현승(한국현대시인연구-10)』, 문학세계사, 1993,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유년 시절부터 교육 받은 청교도적 신앙의식은 위에서처럼 삶과 문학에 대한 그의 이상적 좌표로 수용되어 각인되었고, 그 이후 김현승의 시의식 형성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순수한 양심을 기저로 한 청교도 의식과 삶의 일치(일치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그는 타락한 당대의 정치인을 가장 경멸했으며, 정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문인이 생활(인격)을 저버리고 문학을 감정의 배설이나 정서의 유희로 치부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 문단과도 담을 쌓고 지냈다. 이처럼 그는 나름대로 세운 생의 기본 원리나 기본 태도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청교도적 이념으로써 불완전한 자연을 변형시키려고 했으며, 그의 문학에 대한 이상(관념)은 삶에 대한 비평에 다름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견고한 시의식은 결코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죄성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두운 세속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윤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청지기로서의 각성 결과이다. 이러한 사유는 초월적 이상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와 정의가 부재한 현실의 악과 타협할 수 없는 수직적 사유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시 사상에 깊은 영향을 준 ‘청교도적 영성’은 발생론적으로 16세기 타락한 영국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성경적인 원리들에 기반을 두고 모범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운동이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경에 기초하여 든든히 세워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들에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으며 주요 과업은 거룩함(holiness)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청교도들은 삶의 장소에서 순결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 ‘청교도적 영성’에서 중심이 되는 이미지들은 전투행위(warfare)와 순례여행(pilgrimage)이다. 번연의 「천로역정」은 기독교인의 삶을 끊임없이 전투행위가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청교도들에게 성화(sanctification)의 길은 세상의 정욕과 사악함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삶이었다.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이 청교도 영성의 시의식은 가업에 전승된 신앙으로

초기에서부터 그가 40대에 이르는 중기까지 그의 시에서 지배적인 상상력으로 작용한다. 그때까지 김현승 시의 순례와 과업은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는 청교도처럼 세상의 악과 싸울 준비를 위해 고독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었다.⁹⁾ 비극적 감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고독은 자기 정화와 자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시의식이며, 외부세계에서 상처받은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하며 영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신앙과 이상에 대한 청교도적 입장에서 줄곧 원죄의식을 바탕으로 반성과 참회, 또는 정서와 의지, 순수와 정의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했던 그는 50대 이후 신과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일으킨다. 그의 관심은 천국에서 지상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하강하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의 견고한 청교도적 신앙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방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그로 하여금 절대적 존재에 대한 회의를 환기하며 시의식의 중심에 견고한 고독이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시의식의 변화는 동족상잔, 분단모순 이데올로기로 인한 일당 독재, 4.19 민주혁명과 군사 독재가 재연되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상황에서 순수시와 참여시 운동이 길항하는 가운데 김현승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시인으로서 실존적 윤리와 책임 의식을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당대의 참여시인들과 달리 일정하게 미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시의식은 그의 청교도적 영성이 완전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은 궁극적인 그의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종교는 전쟁이나 폭탄과 같이 직접적인 파괴력을 갖지는 않으나 人類 惡이나 社會惡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는 救護 米와 같이 배고픈 사람을 당장에 배불릴 수는 없으나, 결국은 오래 배고프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를 회의하고 비판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종교에 더 완전히 귀의하고 싶은 심정의 변태적 발로일지도 모른다. (1970년 9월 <월간문학>)

9) David G. Benner, 이만홍·강현숙 옮김, 위의 책, 139-141쪽 참조.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고고하게 순수한 내면을 지키려는 그의 견실한 태도는 끊임없는 소외와 심리적 상처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력을 지닌 시인이었다.¹⁰⁾

신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자기의 실존적 고독을 절대적인 시의 사유라고 주장하던 시기에 쓴 위의 글은 종교적인 영성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세속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신앙적 믿음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 스스로는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존재론적 시의식은 대체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영성으로 자리를 바꾸어 갔다고 보인다. 실존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선형적이고 추상적인 본질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유와 책임감, 선택, 그리고 실존적인 고독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내보이는 내면의 창조적 반응에 주목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신과 관계 맺고 있는 영(spirit)으로 보았다. 영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됨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으로 성취되는 것이며, 자의식이 강한 책임있는 존재로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기(self)는 외부의 절대자에게 의존하게 될 때, 인격의 모든 타자들을 위한 통합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가능한 것과 필연적인 것들의 종합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기에 의해 결합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노력, 신중함,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려는 용기가 필요하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어서 참된 실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긴장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 중 하나를 포기하면 절망에 빠지므로 진정한 자기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기보다는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영적 몸부림인 것이다.¹¹⁾

10) 1937년부터 8·15해방까지의 절필 기간은 그가 신경쇠약과 위장병 등으로 고생했으며, 승실전문 재학 시절에도 이 질병으로 두 번에 걸쳐 휴학을 했다. (이운룡 편저, 『김현승(한국현대시인연구10)』, 위의 책, 152쪽)

196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수평적으로 돌보아야 할 타자들에 대한 윤리적 강박감 때문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영성과 교분을 나누던 김현승은 일시적으로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피하고, 그의 시의식은 신의 자리에 고독을 치환시키는 담대한 절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양심의 존엄성을 믿는 그의 시의식은 허무주의나 퇴폐주의로 변질되지는 않았다. 자의식이 과잉된 담대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도 그는 양심이 진화의 결괏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 말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회복된 다음 그는 고독의 성에서 벗어나 다시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시를 ‘까마귀의 외마디 울음소리보다도 못한 나의 시’라고 말함으로써 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했다. 이처럼 윤리적인 지식인으로서의 김현승이 그의 생애의 대부분인 시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견지했던 시의식을 반성하는 자리는, 바야흐로 그의 영성이 겸허하게 인지적 탐구의 극점에서 전환함으로써 자아를 포기하고 비우는 계기가 된다. 그의 수직적 사고는 중국에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발견함으로써 신 앞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는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 김현승의 생애는 마치 『천로역정』의 주인공의 편력처럼 하나의 완결성 있는 극적 스토리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운명적으로 신앙의 문턱에 들어섰다가 신에 대한 회의와 방황을 거쳐 다시 신앙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경로는 기독교적 인생관에 비추어 볼 때, 방황과 시험을 거친 성서적인 귀의와 구원의 알레고리와 흡사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삶은 구약의 유대인처럼 고난과 구원, 혹은 신과의 소외와 회복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고스란히 밟고 갔다. 그러나 그의 다변화된 삶의 역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기독교적 영적 탐구의 자장을 한 치도 떠나지 않았고 신에 대한 회의도 결국은 종교적 상상력이 극에 가서 얻을 수 있는 방법적 부정이었다.¹²⁾고 생각한다.

이처럼 김현승의 시의식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시대적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청교도적 경건성과 윤리의식으로 세상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개혁

11) David G. Benner, 이만홍·강현숙 옮김, 위의 책, 96쪽.

12) 유성호, 「김현승시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70쪽.

하겠다는 견인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는 어두운 영성으로 조절되지 않은 광포한 자연과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의 영성 내면에 더 큰 어둠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가 쌓아 올렸던 견고한 고독의 성은 스스로 그 속에 유폐되는 폐해를 낳기도 했지만, 궁극에는 그가 그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성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고투였으며 시는 성화되기 위해 속죄양으로 바쳐진 제물이었다. 그는 줄곧 수직적 의식의 성소에서 더럽혀진 세상과 등을 지고 고독을 추구함으로써 절대자와 지순한 대화를 나누고자한 시인이다. 존재가 망각된 현실의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경건성이 견고한 의식으로 강화되면서 유한성과 무한성을 진동하며 영성 탐구를 추구하던 그의 실존적 영성은 주옥같은 시편을 생산해내는 미적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초월적 측면에 강박됨으로써 초월과 동시에 비워야 할 자리에 ‘절대고독’의 자의식을 채워 넣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겪기도 했다. 상실한 존재를 찾기 위해 견인적인 초월을 통해 신과 의사소통하려던 수직의 사유가 그 대화 나눔의 통로를 상실한 채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검은 빛’이 짙게 착색된 높디높은 고독의 성에 스스로 갇히기를 자처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주지적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김현승이 진리와의 만남을 지나치게 수직의 인지적 지평에서 추구하다 실패한 엄숙주의자의 비극적 면모로 입혀지기도 한다. 이러한 김현승의 시행착오는 사물과의 풍요로운 교섭이 배제된, 생명의 대화가 단절된 영성이 지식으로 환원될 경우 건조한 고독의 껍질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어둠과 절망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준다. 그러나 한편 김현승 시는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독자들에게 윤리적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실존 의식을 환기시키는 미학적 미덕을 풍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는 끝까지 스스로는 신 앞에서 어둠과 고투하면서 황혼에 떠나는 서부극의 사내처럼 해피엔드의 몫을 독자들에게 떠넘기는 방법을 취했다. 그가 벌인 고독에의 탐구와 그것을 통한 정체성 추구는 신성한 종교적 이념과 종교인까지 타락한 시대에 새로운 삶의 윤리를 건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물질적 탐욕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존재가 사라지고 폭력과 어둠만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

하여 설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초월과 더불어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자인 신 앞에서 자기를 겸허하게 비우고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자기와의 화해를 찾는 일이다. 김현승의 시적 편력은 어둠이 현란하게 착종된 소외의 현실과 고투하면서 내면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 회복을 모색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윤리적 공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미적 모델이다. 이제 각 시기의 대표적인 그의 시를 분석해봄으로써 그의 영성 탐구 태도와 시의식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새벽 지향의 소망적 알레고리

양주동의 추천으로 1934년 『동아일보』 문화란에 실린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과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편의 시는 그의 초기시가 지닌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시가 전개될 방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아침 해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크고 작은 유리창들이/순간의 영광답게 최후의 찬란답게 빛이 어리었음은/저기 저 찬 하늘과 추운 지평선 위에 붉은 해가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날이 저물어 그들의 恍惚한 심사가 멀리 바라 보이는/廣闊한 하늘과 大地와 더불어 황홀의 默想을 모으는 곳에서/해는 날마다 그의 마지막 情熱만을 세상에 붓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렇게 붉은 情熱만은 아마 식을 날이 없겠지요/아니 우랄산 골짜기에 쏟아뜨린 젊은 사내들의 피를 모으면 저만할까?//그렇지요. 東方으로 귀양간 젊은이들의 情熱의 會습이 있는 날/아!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黃金窓을 단 검은 汽車가/어둡고 두려운 밤을 피하여 黎明의 나라로 화살같이 달아납니다/그늘진 山을 넘어와 廣野의 詩人 검은 까마귀 城邑을 지나간 후/어두움이 大地에 스며들기 전에……………//情緒를 가진 이, 일만 사람이 쓸쓸하다는 겨울 저녁이 올 때/구슬픈 저녁을 더더 裝飾하는 가냘픈 旋律 끝에 매어 달린 曲調와/당신의 작은 것을 찾는 가없는 마음 일랑 작은 산새에게 내어주고/綠色 등잔 아래 붉은 會話를 그렇게 할 이

옷에게 맡기고/여보! 당신들은 猛烈한 바람이 부는 추운 거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소름찬 당신들의 일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쓸은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부분

이 시는 김현승의 처녀작으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아침 해의 축복과 사랑
을 받지 못하는 크고 작은 유리창들’이 ‘쓸쓸한 겨울 저녁’에 찬란한 빛으로
어리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시인의 관념이 투입된 유리창은 소외
된 ‘젊은 당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비유하는 알레고리이다. 시의 장에서 가상
의 ‘젊은 당신들’과 대화하고 있는 화자는 춥고 쓸쓸한 시간일수록 삶을 영광
스럽게 하며, 찬란하게 하는 해의 ‘붉은 정열’이 결코 식지 않음을 환기시키
며, ‘너무도 오랫동안 차고 어두운 이 땅’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련
의 감정을 발끝까지 찍어버리고, 금붕어 같은 수형(水刑)의 삶을 완전히 청산
하고, 강건한 역사를 또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캄캄한 산마루에 빛나는 해를
불쑥 올려야 함을 역설한다. 시의 결미에 이르러서는 화자는 캄캄한 시간
을 빛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극적인 비애와 녹슨 회화를 떨쳐버리고 ‘맹
렬한 바람이 부는 추운 거리’로 나아가서 정면대결 해야 함을 웅변조로 설득
하고 있다.

이 시를 사회주의 혁명 의지로 오해한 당시 좌익문학의 좌장격인 임화(林
和)가 찾아와 원고 청탁을 하자 김현승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김현승은
이 시기의 시를 두고 민족의 구원과 센티멘털리즘이 짙게 풍기는 자연예찬과
동경의 세계를 노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어쨌든 그의 서시적인 이 시에는
김현승의 시에 대한 사유 방법과 태도가 망라해서 드러난다. 그는 자연의 외
연을 묘사하지 않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시적 관념을 자연의 사물에 투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시에는 종교적 관념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인식
론적인 태도가 관념을 육화하는 상상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면화된 시적 사
유로 인해 그는 초기부터 어둠과 밝음의 자연현상을 병치시켜 내적 관념을
투사시키는 대위법을 구사한다. 선과 악에 대한 청교도적 정의가 뚜렷한 그의
시의식은 낭만적 정열이 통제되고 그 자리에 내면 탐구를 향한 인지적 열정

이 대신한다. 기독교 신앙적 영성과 주지적 모더니즘이 혼재된 시의식은 현실의 소외를 비폭력적 윤리로 정면 대결하기 때문에 내면탐구라는 수직적 사유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 서시에서처럼 시인으로서 추구해 나아가야 할 자기 정체성의 좌표를 문답법으로 다짐하며 그를 ‘검은 까마귀와’ 같은 ‘광야의 시인’으로 자처하게 만든다. 초기시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이미지들은 이미 김현승이 현실의 어둠에 마주선 아웃사이더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고독’의 씨앗은 이미 그의 모종 단계에 뿌려진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 시는 쓸쓸한 겨울저녁 황혼 빛에서 영원함으로 상징되는 신의 영광과, 그 빛이 주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재인식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인간의 내면적 열정으로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뉴프론티어로서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초기시는 오래된 비인도적 풍속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신념과 소망을 다짐하는 시를 구가했다. 그의 강렬한 의지는 차가움을 뜨거움으로, 어두움을 밝음으로, 밤을 새벽으로 자리바꿈하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구사하게 된다.

감상적 분위기와 소박한 낙관주의가 묻어 있기는 하지만 위트와 풍자 등 모더니즘의 지적 풍토에 들어선 그의 초기시는 밤의 상황에서 ‘밝음’을 소망하는 ‘새벽’ 지향의 이미지를 구사함으로써 과거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습속을 끊고 새로운 긍정적 가치인 민족의 구원이나 개인의 구원 및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꿈꾸는 선구자적인 탐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¹³⁾

2.2. 영성과 역설의 자기 성찰

8·15 광복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김현승의 시작 생활은 제2기로 접어들며, 이때부터 그의 시는 신과 인간의 문제로 접어든다. 그는 신앙과 생명의 세계를 시로써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합치되지 않는 신

13) 김현승의 선구자적 소명 의식은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벽 教室」, 「새벽」 같은 시들처럼 새벽 중심의 이미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의 의지와 인간 이성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지 고민하였다.

내 목이 가늘어 懷疑에 기울기 좋고, //血液은 鐵分이 셋에 눈물이 일곱
이기/豹虎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팅게일……//마흔이 넘은 그보다도/뺨이
쪼들어/戀愛엔 아주 失望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信仰과 이웃들에 자못 길들기 어려운 나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
쳐 허허 웃어 버리는/肥滿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내가 죽는 날/단테의
煉獄에선 어느 扉門이 열리려나?

「自畫像」 전문

이 시는 김현승이 해방 후에 창작을 재개한 시기(1947. 6)에 씌어진 작품이다. 화자가 스스로의 기질을 고백하면서 시인의 내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위의 시는 그의 시의식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이 시기에 그는 초기시에서 보여준 뉴프론티어로서의 신념과 열정이 소거되고 대신 자신의 내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시작 태도가 회의적인 내면탐구로 변화한 기저에는 그가 이전의 민족적センチ멘털리즘과 다르게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불순한 현실 치중의 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모색한 데 기인하며, 더불어 8·15 해방이후의 동족끼리의 냉대와 갈등이 횡행하는 사회의 부정적 혼탁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집중적인 내면탐구는 위에서처럼 예민한 성격에서 오는 회의, 견고함과 연민으로 구성된 체질, 연가풍에 어울리지 않은 가난한 기질, 순수에 대한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 신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성품에 대한 죄의식과 그로 인한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불안 등이 자조적으로 토로되고 있다. 이런 회의와 죄의식, 그리고 불안은 그의 영성이 신과 인간의 내면을 교감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교감은 6·25전쟁 때 애지중지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시 「눈물」에서 새로운 영성의 차원을 얻게 된다.

더러는/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生命이고저……/흙도 티도/금가지 않은/

나의全體는 오직 이것뿐!! 더욱 값진 것으로/드리라 하올 제/나의 가장 나
아중 지니인 것도 다만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열매
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 전문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하였었고,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를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
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6·25 전쟁 중에 이동주가 편집하고 서정주가 주재하여 광주에서 발간된
『詩精神』(1952) 창간호에 실린 작품으로, 그가 어린 이들을 잃고 애통해하던
중에 씌어진 시 「눈물」을 자설하면서 토로한 위의 고백은 그의 영적 탐구를
향한 견고한 시의식과 태도를 가장 잘 시사해 준다.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가 신에게 취한 태도는 일상적 차원을 달리한다. 개인적인 애통을 수직적
사유로 승화시킴으로써 그의 각성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과 교감하는 영적 차
원에 다다른다.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운명의 비애를 전환시켜 생명을 창
조주에게 겸허하게 돌려드리는 그의 돈독한 믿음은 자식을 얻은 기쁨과 자식
을 잃은 슬픔 모두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러므로 오히려 피조물인 내가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슬픔이 정화된 새로운 생명 구원의 씨앗으로 전이된
고귀한 눈물이며, 그 눈물조차 절대자인 신이 지어 주셨다는 깨달음에 이른
다. 죽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비우며 신에게 눈물로 헌신하는 화자의 깊은 신
앙 고백은 신에 대한 영적 탐구의 극치를 보여준다.

비극적 감정은 본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카타르시스와 연관이 있다. 그
리스에서는 종교적 제의가 곧 비극이었다. 비극, 즉 trag-odia(영어 tragedy)는
숫염소 또는 산양(trag)과 노래(odia)가 합성된 말로 “숫염소를 잡아 노래를 한

14) 김현승, 「굽이쳐가는 물굽이같이」,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236쪽.

다. 즉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었다. 제의(비극)에는 탄원이 있었고, 그 탄원은 카타르시스였다. 그러므로 비극적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격정의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그 연민과 공포를 몰아내어 정화(purgation)하거나 조정(purification)하는 정신 요법이었다. 이런 정화라는 개념은 이미 고대의학에서 쓴 동류요법(同類療法)과 같으며, 의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이열치열의 요법으로 다스렸던 것이다.¹⁵⁾

시 「눈물」은 그가 믿는 신에게 바쳐진 신앙고백이며, 자식을 잃은 내면의 연민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카타르시스의 제물이기도 한 것이다. 위 시에서 눈물은 ‘생명의 씨앗’과 ‘온전한 전체(순수한 영성)’, ‘가장 귀한 보석’, ‘최종의 제물’, ‘당신의 선물’로 변형되면서 신의 절대적 섭리 앞에 순정한 자기를 드러내놓는다. 이 시의 주체는 절대 타자로서의 신을 세계내 존재로서 인식하면서 신에게 일방적으로 기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를 치열하게 확인하고 지켜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존적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 시의 실존적 진정성은 그 회감(回感)의 미적 깊이 때문에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이 시기에 김현승은 신성이 육화된 사물과의 교감을 통해 영성 탐구의 열망과 진지한 자기 성찰이 균형 잡힌 작품을 많이 생산해 내었다. 시 「五月의 歡喜」에서 그는 드디어 ‘그늘’과 ‘밝음’의 양면성이 동시에 내포된 초자연적 신성이 계절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의 모순된 현상 때문에 고민하던 자아(ego)의 욕망을 버리는 깨달음의 순간은 이 시에서처럼 자연이 ‘그늘/밝음’, ‘기쁨/눈물’, ‘형상/진리’, ‘채움/나눔’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그의 입체적 인식의 지평이 드러나는 계기이기도 하다.

앞에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영성을 논의하면서 자아의 욕망을 비우는 회심 속에서 최종으로 신과 합치되는 자기(self)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가능한 것과 필연적인 것들의 종합이라고 기술한 바

15) 변학수, 「문학치료와 문학경험」, 『독일어문학 제10집』, 1998, 269-271쪽 참조

있다. 내적 순수성을 견지하면서 영성을 탐구한 김현승의 상상력이 인식론적 차원에 머물렀을 때, 그의 시는 건조하고 까칠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차원을 한 번 더 수직적으로 초월할 때, 사물의 세계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율화의 세계로 자리바꿈하게 된다. 이 시는 갈등할 수 있는 두 존재자 사이를 하나의 존재로 가로지르는 ‘영성이 신성으로 하나 되는 환희의 공간’에서 잠시나마 진정한 위안과 안식을 맛보는 고단한 구도자의 내면을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 앞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은 멀고 험하다. 시 「나무와 먼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 닿아 있는 신성적 존재인 ‘나무’와는 달리 인간인 ‘나’는 ‘아름다운 그이’를 잘 알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의 사변적 언어로서는 결코 실재와 그를 형상할 수 없는 무력감과 왜소함을 느낀다. 나는 나무에게서 신성적 경지에 속해서 침묵 가운데 풍요로운 실재를 드러내는 참모습에 경이를 느낀다. ‘나무’는 ‘이루지 못한 내 노래의 그늘들을 그렇게도 가뻐이 늘이’고 썼기 때문이다. 나무에게 내면의 영성을 투사한 이 시는 나무에게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영광의 못 박힌 발부리를 환기하며 구원의 신성에 자기희생적 고독이 부수됨을 깊이 깨닫게 한다.

나무에 대한 신성을 향한 내면의 실존적 영성 탐구는 시 「플라타너스」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나와 플라타너스는 ‘꿈/머리 젖음’, ‘사모/그늘 늘임’, ‘외로운/동반자’, ‘내 영혼/네 뿌리’ 등의 언어 사물로 대위되면서 화자의 나무에 대한 내면의 투사가 이루어고 있다. 그는 내가 언어로 꿈꾸고 생각하는 영혼의 자리에 이미 하늘의 신성과 닿아 있는 나무가 오래 전부터 서 있음을 재인식하면서 내면에서 나무와 친화되어 통합의 장을 이룬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너를 맞아 줄 검은 흙’,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썸이 열리는 안식의 미래 공간’으로 정화되어 표상된다. 나무에 투사된 사변적 영성 추구는 시를 통해서 영성을 탐구하는 김현승의 고독한 체질에 가장 합치되는 사물이었으며, 나무에 기댄 수직적 사유와 미래를 지향한 순수성은 형이상학의 세계를 가장 탁월한 미적 언어로 구사해 놓았다.

고요와 침묵 가운데 신을 향한 영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은 보다 깊은 자기

성찰과 기도로 나타난다.

가을에는 /祈禱하게 하소서……/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謙虛한 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가을에는/사랑하게 하소서……/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肥沃한/時間을 가
꾸게 하소서.//가을에는/호올로 있게 하소서……/나의 영혼,/굽이치는 바다
와/百畝의 골짜기를 지나,/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가을의 祈禱」 전문

화자가 도달한 시간은 가을이며, 이 시는 가을 상황 속에서 더욱 ‘신’에 대한 열망을 청교도적 경건함과 실존적 유한자의 윤리적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다. 가을이라는 시간은 이별과 결실의 이미지가 교차하면서, 신이 내게 분수대로 주신 ‘謙虛한 母國語’를 채워주기를 간구한다. 이는 자신이 결코 ‘천상의 온전한’ 언어로 채워질 수 없는 유한자임을 인식하고, 신은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윤리적 순수성이며, 그러한 자세만이 신의 ‘肥沃한 時間’을 가꿀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3연에서처럼 내 영혼이 시련의 바다와 환희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홀로 있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가을이라는 소멸을 향한 이별의 상황에서 ‘마른 나뭇가지 위’와 ‘호올로’, ‘까마귀’ 등과 같은 시어들을 중첩시킴으로써 경건한 고독을 지향하는 시인의 내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향성은 이후 김현승의 시에서 청교도적인 경건한 영성은 내면으로 숨어버리고 시의 화자가 지상의 현실에 더욱 다가가는 실존적 고독이 시의 전면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까마귀’로 상징되는 지상에서 자신의 고독을 견인하고, 스스로를 소멸의 제물로 헌신함으로써 절대자의 영성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김현승의 역설적인 자기 탐구의지는 시 「地上的 詩」에서 선명하게 부각된다.

‘보다 아름다운 눈과 눈물을 위하여’ 내 마음은 ‘喪失의 마지막 잔’이며,

시는 ‘거기 반쯤 담긴 가을의 향기와 같은 술’이라고 진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자가 상실의 상황과 소멸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모든 욕망을 비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시인이 현실의 유한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소멸을 수용하면서 고독의 의지로 마주하겠다는 역설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시는 그곳에 멀리 비추이는 입 다문 窓들’이며 ‘당신의 영혼을 호울로 北方으로 달고 가는 검은 汽笛’인 동시에 ‘때때로 나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천사의 날개와 같은 지상의 신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시는 천상의 신과 지상의 영혼을 매개하는 미적 존재로서 절대적 역할을 한다. 지상적 가치의 소멸을 영적 가치로 소생시키는 시가 절대자를 향한 유일한 미적 통로라고 믿고 있는 김현승의 시에 대한 이러한 자기 탐구의 신념은 그의 시를 사회적 폭력과 부조리가 범람하는 지상에서 좀 더 견고하고 절대적인 고독의 경지로 이끌고 간 것처럼 보인다.

2.3. 절대고독에 이른 자기 탐구

두 권의 시집 『견고한 고독』(1968)과 『절대 고독』(1970)은 김현승이 50대를 맞아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에 출간되었다. 이제까지 ‘물질에 유린된 고귀를, 유형에 압도된 무형의 풍성함을, 양에 짓밟힌 질의 가치를, 실증보다 명확한 신앙을 옹호하고, 전진의 이름으로 후퇴를 거듭하는 현대의 경박을 규탄한 노래¹⁶⁾를 부른 김현승은 자기탐구를 통해 그가 지향했던 신성의 내용을 진실한 시어로 번역해 놓았다.

청교도 사상으로 깊이 뿌리내린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내리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실현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세속적인 구원의 신앙보다 실천해야 할 사회적 윤리와 양심이 이지적으로 고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김현승, 「고요한 면을 지닌 <눈물>」,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193-194쪽.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나아가 화복할 것인가/쫓김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나는 내게로 흐르는가/너를 거슬러 내게로 오르는가//
두 손에 고삐를 잡을 것인가/품안에 안길 것인가//허물을 지고 갈 것인가/
허물을 묻을 것인가//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인가/살고 볼 것인
가//될 것인가/빛을 뿌릴 것인가//간직할 것인가/바람을 일으킬 것인가//하
나인가/그 중의 하나인가//어떻게 할 것인가/뛰어 들 것인가/뛰어 넘을 것
인가//파도가 될 것인가/가라앉아 진주의 눈이 될 것인가//어떻게 할 것인
가/끝장을 볼 것인가/죽을 때 죽을 것인가//무덤에 들 것인가/무덤 밖에서
뒹굴 것인가.

「題目」 전문

절대적인 신 앞에서 진퇴양난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화자의 질문 방식
으로 시종일관한 이 시는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 신에 대
한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화자는 신과의 관계를 안주와
화해, 순리에서 초월, 갈등, 역리로 이분하며 흔들리는 내면을 다스릴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진실에 어긋난 사회현실에 대해서 준열한 질타와 비판을 가하
면서도 자기 탐구의 방법으로 신성과 자유를 지켜온 그에게 더욱 신의 진리
와 어긋나는 한국의 사회 현실은 치열한 자기 탐구를 요구해 왔다. 그는 위
시에서처럼 좀 더 이성의 눈으로 신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달아볼 수밖에
없었다.

존재자로서의 현실의식이 강요될수록 존재의 절대성은 깊이 내면화되었으
며, 인간과 역사를 보는 실존적 단독자로서의 고뇌에 보다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는 신에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
게 스스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가장 질게 표상되는 ‘고독’은 불신앙으로서 신에 대한 부정을 강조
하기보다는 삶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진실하게 접근하기 위한 단독자로서의 각
성이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이미지는 단단하고 견고한 관념으로 발을 옮기면
서 그의 신에 대한 회의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자크 라캉의 개념으로 말
하자면 신에 대한 인식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자아로 굴

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을 실체론적으로만 인식하던 그가 신을 관계론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상징계에서 단독자의 윤리의식이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고독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이 ‘견고한’이란 관형어가 ‘절대’란 말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절대적인 신의 개념을 절대적인 고독의 개념으로 자리바꿈한 의미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 신의 위치에 있는 ‘절대’ 개념을 자신의 내면에 끌어들이므로써 좀 더 영성 탐구에 대한 치열한 윤리성을 실현하려는 미적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겹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그늘에 빗지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모든 신들의 거대한正義
앞엔/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거슬리고/생각하던 사람들 굶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네 살과 같이 떼어 주며//結晶된 빛의 눈물/그 이슬
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堅固한 칼날-발 딛지 않는/피와 살//뜨거운 햇
빛 오랜 時間의 懷柔에도/더 휘지 않는/마를 대로 마른 木管樂器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굳은 열매//쌈쫄한 滋養/에 스며드는/에 스며드
는/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

「堅固한 고독」 전문

이 시는 견고한 고독의 관념을 육화시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조마’의 촉각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전이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은 단 ‘하나의 손발’로 그리고 ‘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환유된다. 건조한 육체 이미지로 바뀐 그의 고독은 신의 모든 초월적인 거대한 정의 앞에서 ‘가느다란 창끝으로’ 마주 서는 무기가 된다. 그 마주섬은 화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인간들을 연민하는 휴머니즘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 마른 떡이’ 결코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지만 ‘하룻밤’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화자의 미적 신념이 노정된다. 영원한 안식은 너무 먼 소망이며, 순간의 영적 안식이 허락되지 않는 인간에게 고독을 견인하는 실존적 의지가 더 미적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시에서 고독을 지향하게 된

이유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보석처럼 결정된 빛의 눈물은 다시 이슬과 사랑에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로, 그 심리적 저항기제는 다시 한번 발 딛지 않는 순수한 ‘피와 살’이라는 육체적 이미지로 환유된다. 이처럼 김현승이 지향하고 있는 고독의 이미지는 모든 초월적인 거대한 힘에 대한 화자의 반향과, 이슬과 사랑에 녹슨 무력함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반성은 화자로 하여금 스스로 ‘뜨거운 햇빛’에 너무 회유되었음을 자책하는 견고함으로 다가서게 하면서 역시 건조함의 미감을 환기하는 ‘목관악기의 가을’을 지향하게 한다. 그리고 그 가을의 높은 언덕에 굳은 열매가 떨어지며, 그 굳은 열매의 ‘뺨쓸한 滋養’은 그가 지향하는 ‘견고한 고독’이 순수하게 수용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김현승의 시의식이 추구하는 영성은 신의 거대한 절대성을 회의하면서, 자기희생을 통한 고독의 미적 자의식이 신성성에 도달하려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낳는다. 이것이 김현승의 수직적 사유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인데,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구원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병치시키며 건조미학을 주조하였다. 이 건조미의 취지는 화려함과 유머를 좋아하지 않는 그의 기질과 더불어 다분히 금욕적인 헤브라이즘에 대한 그의 후천적 훈련에서 얻어진 것이기도 하다.¹⁷⁾ 종교를 인간의 관습적 행위에 다르지 않다고 회의하면서 그는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자처하며 고독의 여정에 오른 것이다.

신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자유 의지는 그 스스로 고백한 바 있는 ‘父母 있는 孤兒의 孤獨’이다. 신을 거부했으므로 그의 고독은 구원을 바라는 성서 속의 고독이 아니며 완전고독으로 자기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삶이나 기독교적 획일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지이지만, 신으로

17)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김현승은 위장병과 신경쇠약 같은 정신적 병력과 더불어 새벽의 빈 커피숍에서 혼자 차를 마신다든지, 주위의 人間群에서 외떨어지기를 바라고, 사람 사귀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든지, 시단에서 스스로 단절되기를 자초했던 일련의 삶의 태도는 ‘고독의 시’를 낳게 된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김현승, 「나의 고독 나의 시」, 앞의 책, 212-213쪽.

부터 구원을 잃었거나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고독 속에 갇혀 버리는 순수한 고독 그 자체이다.¹⁸⁾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내가 만지는 손끝에서/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내가 만지는 손끝에서/나는 내게로 오 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이 體溫으로 내게서 끝나는/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 준다.//그리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받친/ 내 言語의 날개들을/내 손끝에서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 보내고 만다.//나는 내게서 끝나는/아름다운 영원을/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드디어 입을 다문다...나의 詩와 함께.

「절대고독」 전문

시 「堅固한 고독」에서처럼 이 시는 육체적 이미지와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면서 화자가 비로소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는’ 감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관념적 사유를 자기 손끝이 감각하고 있는 점진적 생명감 자체에 돌림으로써 의식이 통일되는 일체감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나’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열네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만큼 이 시는 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유의지를 보여준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손끝에서 체온을 느끼고 그 체온이 ‘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 주는’ 분열된 의식과 생명감의 일치를 맞본다. 이 경계는 신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대한 부정의 시각으로 영원의 끝을 손끝의 감각에서 확인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그 영원이 함께 끝나버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화자는 ‘내 언어의 꿈의 날개들’조차 날려 보내고, ‘내게서 끝나는 아름다운 영원을 내 손끝에서 썩어진 시와 함께 입을 다물고 싶다’고 선언함으로써 신까지 포기한 채 극한 상황에 몰입해 간 고독은 드디어 그를 침묵 속에 던져 버린다. 신의 영

18) 이운룡, 「다형 김현승의 詩소리」, 『문학과비평』, 2003 겨울(통권 제8호) 참조

원성은 실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고 만다는 생각이 이 시의 주제다. 절대 신성과 반성적 자아에 끼어든 고독의 영성은 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얻고자 하는 독존적 의식으로 시를 이끌어가서 절대신의 영원성이 거부당한 자리에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와 더불어, 인간 정신은 그로 인해 근원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절대고독의 시편에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그가 추구한 영원은 육체적인 죽음에 착중한다. 신을 잃은 인간적 체취가 짙게 배어나오는 이 시는 신을 떠난 김현승의 내면탐구가 도달한 고독의 꼭짓점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고독을 발견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비움으로써 신을 새롭게 만나는 구원으로 나아갔다면, 김현승은 타자를 향한 구원의 출구를 닫고 대신 자신의 유한한 생명감에 고독을 아로새기는 시의 미학을 추구했다. 수직적인 사고로 의사소통을 추구하던 절대적인 신인 타자가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절대 고독으로 변장하고 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로지 시의 진정성만이 생명의 구원과 합치된다는 유희주의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절대고독을 구가하던 김현승은 1973년 3월 차남의 결혼식장에서 고향압으로 졸도하여 의식불명인 채 2개월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후 이제까지의 시가 ‘까마귀의 외마디 울음소리보다도 못한 나의 시’라고 고백하고 그의 기독교 신앙은 시보다 우위를 회복한다. 그 동안 신의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고투했던 고독의 성을 벗어나 그는 신과의 만남을 절대가치의 존재 원리로 다시 수용하게 된 기독교 신앙으로 회귀한다.

2.4. 마지막 지상에서의 회심(回心)

김현승이 병을 앓고 기적적으로 소생한 말년 이후의 시세계는 “지금의 나의 심경은 시를 잃더라도 나의 기독교적 구원의 욕망과 신념은 결코 놓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고백이 뒷받침 해 주는 것처럼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내적으로 울퉁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청교도적 정결

성과 더불어 치열한 윤리의식과 실존적인 내면탐구로 일관해 온 그의 시는 절대적 존재와 긴장하고 갈등하는 시적 자아가 이루어온 회의의 흔적을 지워내고 그의 신을 향한 평화로운 귀의로 탈바꿈한다. 이제 그는 어두운 고독의 성에서 벗어나와 ‘니누에 성’으로 복귀하는 ‘요나’를 체험하는 신앙시를 쓰게 된다.

이 어둠이 내게 와서/요나의 고기 속에/나를 가둔다./새 아침 눈부신 땅에/나를 배알하려고.//이 어둠이 내게 와서/나의 눈을 가리운다./지금껏 보이지 않던 곳을/더 멀리 보이게 하려고./들리지 않던 소리를/더 멀리 듣게 하려고.//이 어둠이 내게 와서/더 깊고 부드러운 품안으로/나를 안아 준다./이 품 속에서 나의 말은/더 달콤한 숨소리로 변하고/나의 사랑은 더 두근거리는 /허파가 된다./이 어둠이 내게 와서/밝음으론 밝음으론 볼 수 없던/나의 눈을 비로소 뜨게 한다!//마치 까아만 비로도 방석 안에서/차갑게 반짝이는 異國의 寶石처럼,/마치 고요한 바닷 진흙 속에서/아름답게 빛나는 眞珠처럼……

「이 어둠이 내게 와서」 전문

김현승은 초기 시부터 ‘어둠’이나 ‘밤’을 소재로 한 시편을 즐겨 써왔다. 이 시에서는 어둠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 갇힌 요나의 체험을 화자의 체험으로 바꾸어 재현하고 있다. 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엉뚱한 곳으로 간 후 물고기 배 속에서 ‘암흑체험’을 한다. 요나는 이 암흑체험을 통해서 유사죽음을 맛보았으며, 이는 새로운 선지자로 거듭나는 통과의례로 해석된다. 어둠이 오히려 ‘부드러움 품’으로 느껴지고, 화자의 말이 ‘더 달콤한 숨소리’로 변해 사랑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그곳이 죽음이 엄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활이 예비된 안식의 성소로 탈바꿈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화자의 눈빛은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까아만 용단이 깔린 보석장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는 ‘이국의 보석’과 같고 깊은 바다의 진흙 속에서 빛나는 고귀한 ‘진주’처럼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생명감으로 빛난다. 이 시에 드러나는 어둠이 함축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단서로 삼을 때,

시작 초기에서부터 어둠의 빛을 띠고 그의 시 도처에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출몰하는 모든 부정적인 사물들은 신앙의 빛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좌절되는 한계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어둠의 관념으로 위장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말년의 시들은 체험의 직접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시의 미적 긴장감이 느슨해짐으로써 심미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수직적인 사고로 추구해 왔던 신성과의 암묵적인 대화가 세속적인 서술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마른 손등으로 닦는/한 두 방울/소금기 섞인 눈물//한 두 줄의 詩 다문 입술보다도/아름다운 結晶을 되려 놓친//남은 것은/ 창 밖에 울고 가는/검은 까마귀,/녹슨 칼의 소리로 울고 가는//남은 것은/ 한 두 스푼의 카페인,/잠 못 자는 石炭質과/새벽녘의 마른 기침//남은 것은/엷은 햇빛/담 모퉁이의 엷은 햇빛을/참새들과 함께 쬐는/나의 마른 손/일생을 생 각했으나,/불을 만들고 불빛을 꺼버린/손금이 나쁜 나의 손……

「落葉以後」 전문

‘남은 것은’이 반복되면서 보여주는 부정의식은 ‘남은 자’로서의 반성 의식을 보여 준다. 시제(詩題)로 볼 때, 화자는 모든 낙엽이 지고 난 후 그 생의 시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가을의 끝에서 서 있다. 그의 신앙적 윤리의식이 서 있는 시간은 언제나 소멸의 시간인 가을이나 겨울, 혹은 생명력이 건조해진 상태의 극점이다.²⁰⁾ 소멸의식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청교도적이고 실존

19) 어둠이 함축하고 있는 통과제의의 동굴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김현승의 시는 광광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절대 고독’도 지상적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탄생되는 내면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연소를 통한 정화에 역점을 두면서 스스로의 ‘사라짐을 통한 영원성의 탄생’을 탐구한 일련의 실존적 영성 탐구의 노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 신성이 내면화된 김현승의 이 윤리적인 시간 의식은 사라짐, 소멸의 시간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지움과 비움이라는 윤리적 태도를 환기시키는 청교도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고독한 상황을 시에서 연출하는 특징을 지닌다.

적 강박감은 그의 삶과 시를 때로 필요 이상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성을 추구해 온 그의 삶과 시가 지닌 미적 특질이기도 하다.

‘소금기 섞인 눈물’, ‘아름다운 結晶을 놓친 해폰 시’와 정겹게 들리던 까마귀 소리도 그의 귀에는 이제 ‘녹슨 칼이 부딪는 소리’처럼 시끄럽게 들린다. 카페인에 중독되어 잠 못 이루는 병골의 육신도 부끄럽다고, 우울한 심경을 담담하게 토로한다. 빈틈없는 정결함과 올곧음과 순수함을 추구했던 화자는 가을 막바지에 얽은 해를 마른 손으로 쥐고 있는 수척해진 영혼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결미에 이르러서 그의 일생 작업이 ‘불을 만들고’, 아이러니컬하게 ‘불빛을 꺼버린’ 스스로의 수직적 사유가 밟아온 노정과 시적 궤적의 자취를 송두리째 무가치한 작업이었다고 흘뜨려버린다.

그가 치열한 자세로 이루어 놓은 삶의 자취를 ‘남은 것’이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요목조목 내면의 흠을 자세히 드러내는 그의 깊은 반성적인 고백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의 내면 탐구의 세계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그는 이제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흔적을 차분하게 추스르면서 하늘을 응시하는 큰 새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산까마귀/긴 울음을 남기고/地平線을 넘어갔다.//四方은 고요하다!//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마지막 地上에서」

그의 유작(遺作)으로 남아 있는 이 시는 김현승이 지병인 고혈압으로 작고하기 두 달 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미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시에서 암시되고 있다.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는 마침내 ‘긴 울음을 남기고/지평선을 넘어갔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앉아 있던 자리는 늘 떠남을 예비한 순례자로서 고독한 공간이었으며, 260여 편의 시를 남긴 그의 울음은 결코 짧지 않은 통과제의의 기도문이었다. 산까마귀의 넘어감은 그가 줄곧 이 마지막 종말론적 지상을 지켜 왔던 청지기로서의 고독한 영성의 귀환

과 구원을 상징한다. 그 귀환의 '마지막 지상' 분위기는 평화로운 고요로 충만하다. 그가 비움으로 살아온 이 세상은 지금 아무런 부정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온전함으로 있다. 그것은 영원을 향해 정결하고 고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지우고 비운 시적 감정의 투사이기도 하다. 이승에 있는 그는 문득, 자신의 내면인 자기(self)를 향해,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라고 여유있는 자세로 질문하고 있다. 무덤은 부활의 공간이므로 평안한 세계로 귀의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이 암시적으로 표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 글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치료를 염두에 두고 썼다. 오늘날 문학텍스트는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근본적으로 삶의 소외 속에서 발생하는 파괴와 일그러짐의 심리적 상처를 미적 심리를 통해 회복하는 치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균형을 회복하는 심리적 정화와 조절 기능은 생태계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소외를 생명의식 회복으로 접근하려는 새로운 연구 동향과 일치한다.

특히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다는 라캉의 명제는 은유적 사고와 환유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어떤 균형 속에 우리의 내면을 융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평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인간은 수직적 실체론이나 수평적 관계론에 매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담론이다. 서양의 관념론적 정신사를 반성하려는 입장에서 신을 부정하는 니체와 그 후예들이 은유적 사고가 낡은 진리라고 못 박고, 생명의 역동적 의지를 중시하고 있지만 인간은 합리성의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스림이 방지된 생명의 사슬을 순환하는 사물이 아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영성이 새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생명을 넘어선 영성의 줄기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은유의 수직적 사고가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생명의 풍요로운 현상을 억압한 것을 반성해야 하는 것처럼, 환유의 수평

적 사고는 언어를 초월한 실재의 환기를 망각하고 기호의 차연적 놀이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본질적 언어를 모색하는 은유는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소이며, 인간의 심리적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길은 초월과 비움을 균형 있게 환기시킴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를 찾게 도와주는 것이다.

수직적 사고를 통해 영성을 탐구한 김현승 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1930년대 주지적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의 시는 한국의 근대시사에 보기 드문 형이상학적인 내면탐구를 보여주고 있다. 시치료는 인간 내면의 심리치료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좀 더 깊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심리치료인 영성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김현승 시인의 시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그가 겪어온 소외의 문제를 내면 탐구를 통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근원적인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 숭한 미적 실험과 치유과정을 거쳐 진정한 자기 회복에 이르는 특이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시 치료의 내담자에게는 나름대로 심리적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미적 깊이와 완성도가 높은 객관적 상관물이 요구되는데, 존재론적으로 고독을 탐구한 김현승의 시적 경로와 변화과정은 그러한 치유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암흑기의 소외와 해방 이후의 부정확한 정치 현실에서 오는 소외, 그리고 절대자인 신을 상실한 소외 문제를 청교도적인 순수성과 실존적인 윤리의식 속에서 치열하게 탐구한 시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내면탐구 세계를 격조 높은 주옥같은 시로 창작해 놓았다. 현실에 대해 직접적인 투쟁 대신에 자기부정과 고독을 매개로 내면을 탐구하면서 성숙한 인격의 완성을 위한 고투에서 일구어 낸 영적 탐구의 미적 성과는 내담자들이나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 장애 극복을 깊은 차원에서 메워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그의 삶과 시가 밝아온 노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승은 견고한 자세로 사회 윤리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을 영적 탐구 과정을 통해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시인이다. 이 시인이 이루어 놓은 높은 미적 성과는 오늘의 시 치료 기능이 일반적인 카타르시스를 통한 배설과 조정에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영적 각성과 통찰을 통해 자이를 비우고 진

정한 자기에 이르는 초월과 비움이라는 균형 잡힌 영성 탐구의 차원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김현승, 『김현승전집 1·2·3』, 시인사, 1985-1986.
_____,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이운룡편저, 『김현승, 한국현대시인연구 10』, 문학세계사, 1993.
권택영 엮음,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김형효, 『메를로-뵘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7.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박찬부,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유성호, 『김현승 시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박몽구, 『김현승 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David G. Benner, 이만홍·강현숙 옮김,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 하나의학사, 2000.
Raymond J. Corsini·Danny Wedding 편저, 김정희 역, 『현대심리치료』, 학지사, 2004.
John Fox, 최소영 외 옮김, 『시치료』, 시그마프레스, 2005.

[Abstract]

Poetics of alienation and restoration

-An Study on Kim Hyun-Seung's Poetry-

Young-sup Lee
(Kyungwon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poetry therapy”, a subject now in lively in literary discussion circles. Modern literary tex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readers' response. As such,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brought on by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a discourse. Poetry, in essence, has therapeutic attributes of treating, through an aesthetic psychology, destruction resulting from the alienation from life and psychological pain of distortion. The rise of the concept of eco-poetry and the capacity for psychological cleansing and adjustment (which restores balance through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circulation) is a reflection of new trend in research – approaching the alienation felt by modern people through restoration of *sense of life*.

Although Kim Hyun-seung's life and the road his poetry took was not *smooth*, he nevertheless was firm in his sustained effort to unify socio-ethical conscience and conscience of faith through the process of spiritual inquiry. The most outstanding aspects of Kim Hyun-seung's aesthetic achievement lie in his contribution toward the therapeutic capacity of modern poetry. Kim Hyun-seung's poetry has the following effects: 1) The therapeutic capacity of modern poetry, through catharsis at large, does not remain only at the level of cleansing and adjustment. 2) The therapeutic capacity of modern poetry has the function of emptying out the self through more fundamental spiritual awakening and insight. 3) Only then can one truly realize the transcendence of being a true self as well as the balanced inquiry of spirituality which can be described as “emptying out”.

3keywords: alienation, poetry therapy, ontological thought, solitary, conversion,
emptying out, spirit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